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00~'05 북일 교역액을 중심으로 -

2006. 2.

목 차

I. 조사 개요	1
II. 북일 교역	2
1. 북일 경제관계의 추이	2
가. 2000년 이전의 경제관련 주요일지	2
나. 2000년 이후의 경제관련 주요일지	4
2. 북한의 대일 교역 현황	7
가. 북한의 대일 수출 현황	7
나. 북한의 대일 수입 현황	10
3. 일본의 대북 투자 및 원조 경향	15
가. 북한의 대일 투자 유치	15
나. 일본의 대북 원조 실적	20
III. 북일교역의 장애요소	22
1. KOTRA 실시 대북거래 일본기업 인터뷰	22
2. 납치문제 관련 일본의 입장 및 대처사항	30
가. 납치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	30
나. 일본대중의 대북감정 악화	33
3. 전통적인 북일교역 장애요소	35
가. 일본의 북한에 대한 관세정책	35
나. 기타 장애요소	37
IV. 북일교역 이슈	39
1. 일본내 대북거래 기업(조총련등)의 위기	39
2. 북일→북중교역으로의 무게중심의 이동	40
3. 북한 경제의 회복세 및 향후전망	47
V. 시사점	52

I. 조사개요

- 전통적으로 북한 교역에서의 일본의 비중은 높았음, 특히 러시아의 개혁개방 이후 북한과의 교역이 급격히 줄어든 이후 95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북한의 제1위 교역국에 해당하기도 했으며, 중국과 함께 줄곧 1~2위의 북한의 주 교역국가의 위치에 있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북한의 대일본 교역액은 매년 평균 20%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2004년 이후로는 태국에게 점유율 2위자리 마저 내주게 됨

북한의 교역 비중 변화 추이¹⁾

(단위 : 미\$백만,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국	737.5	27.6	738.2	25.4	1,022.9	32.8	1,385.2	39.0	1,581.2	39.0
한국	403	15.1	641	22.1	724	23.2	697	19.6	1,055.8	26.0
일본	474.7	17.8	369.5	12.7	265.3	8.5	252.6	7.1	193.6	4.77
태국	130.1	4.9	216.6	7.5	254.3	8.2	329.9	9.3	338.4	8.34
총계	2,673.5	100.0	2,901.4	100.0	3,115.3	100.0	3,554.1	100.0	미집계	100.0

자료원 : KOTRA, 2004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 WTA 각국통계, 남북교역동향 발표에서

- 2005년도 기준, 대일 교역액은 1억9천3백만불로 하락, 1977년 1억9천1백만 이후 최저무역액을 기록하게 됨
- 본 조사에서는 최근 북-일 교역의 현황과, 북일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와 이슈등을 살피고자 함

1) 남북교역을 포함한 통계,

*2005년 점유율, 총계는 중,한,일,태국 등 4국 제외 기타 국가는 2004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수치

II. 북일 교역

1. 북일 경제관계의 추이

가. 2000년 이전의 경제관련 주요일지

- 1955년 북일관계개선 발표 후 1956년 9월경 중국을 경유하여 간접무역 실시한 것이 북일 최초교역임, 당해에 60만불의 교역실적 달성
- 1961년 4월 정식으로 북일 직접무역이 실시되어 1963년도에 1천470만불을 기록하여 교역액 1천만불을 돌파하는 등,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여 1970년도에는 교역액 5천770만불을 기록
- 1980년도 5억5천430만불을 정점으로 하여 북일 교역액은 신냉전시대의 전개로, 퇴조 경향을 보임
- 한 편, 1970~80년대의 상대적으로 교역이 활발했던 시기, 일본의 상사들은 북한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채무를 안게 되었으며, 정치 및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 급속히 상황이 악화, 미지불채무액이 큰 문제로 자리잡게 됨
 - 이는 이후 북-일 교역 활성화를 막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됨²⁾
 - 1970년대 석유과동 이후 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외화 부족상태가 일어났고, 일본측의 무역업계는 상환기간에 온 북한 채무에 대하여 수출보험처리를 회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상환등으로 전환됨. 그러나 북한은 1983년 이후 상환을 중단함
 - 북한의 일본에 대한 미지불채무액은 1983년 독일 마르크화 표시 채권으로 6억천만 마르크로, 2000년도 기준으로 북한의 채무액은 이자액을 합쳐 19억5천만 마르크(936억엔)에 달함

2) ERINA REPORT vol 47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經濟關係の歴史と現狀’ 중에서.
현재 1987년 이후 서방 채권단은 북한의 채무불이행상태를 선언한 바 있으며, 북한의 채권은 2005년 현재 1달러당 20센트의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함 - 2006년 연합뉴스 등

- 1984년에 북한은 투자유치를 위한 ‘합영법’을 제정하게 됨. 이후 80년대에는 조총련계를 주축으로 한 대북투자가 ‘애국사업’의 명목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짐,
 - 이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실시된 ‘재일동포귀국사업’등에 따라 이루어진 북송인원 90,442명 등을 친지등이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영세한 투자도 많이 포함됨³⁾

- 이후 90년대의 북한-일본간 무역동향을 보면, 1997년까지는 매년 5억불 안팎의 교역실적을 나타내고 있었음. 그러나 1998년 8월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북일간 수교협상이 동결되고 식량지원이 중단되는 등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면서 교역량이 급감, 연간 3억불대로 축소된 바 있음

90년대 북-일 교역 현황 변화⁴⁾

(단위 : 미\$천, %)



3) 연합뉴스 2006.2.5 / 한 편, 총련계 대북투자 중에서는 북한의 노동력과 귀환재일교포 등의 기술이 결합된 신사복 등의 제조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 대일수출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함 - KOTRA

4) KOTRA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나. 2000년 이후의 경제관련 주요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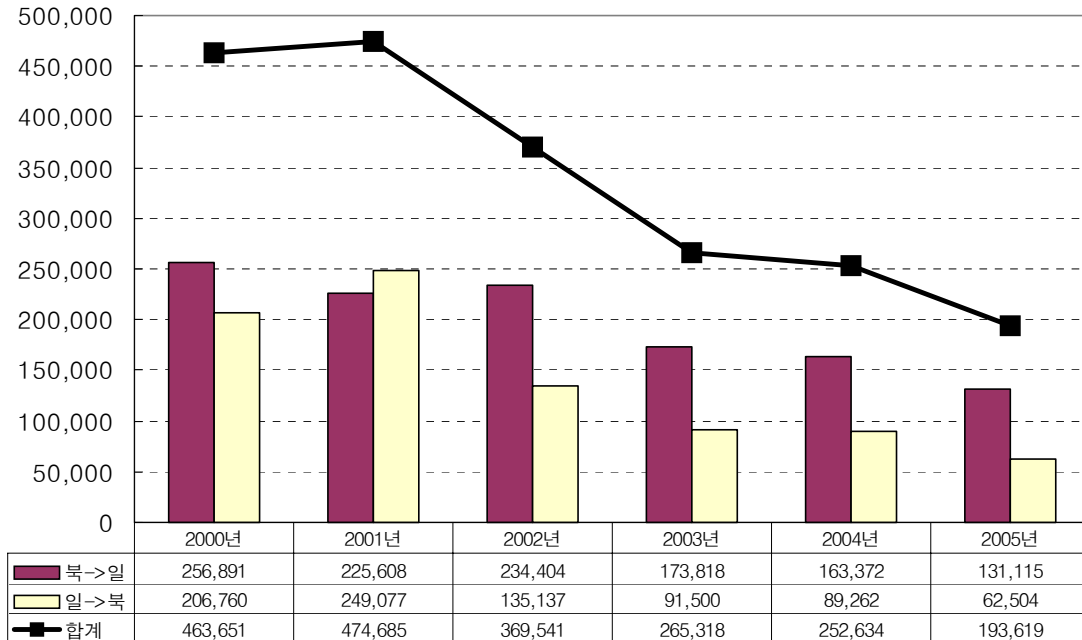
- 2000년도 : 1999년 12월 수교회담이 재개된 후, 2000년에 대북 쌀지원이 재개되는 등, 정치/외교적 환경이 개선되고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점차 호전되면서 2001년도 4억7천5백만불까지 교역량이 증가되어, 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교역량을 기록
- 2001년도 : 전년대비 2.4%의 증가세를 보임, 일본의 대북 무상 쌀지원 50만톤(1억 600만불)이 수입지원으로 속하게 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를 제외한 거래성 대일수입은 30% 가량 감소
 - ▶ 양국간의 외교적 마찰(조총련계 금융기관 수사문제, 북한추정 곡선박 영해 침입사건)
 - ▶ 위탁가공 교역조건의 악화
 - ▶ 일본내 장기침체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총련계 기업의 거래가 감소. 등의 요인 발생
- 2002년도 : 전년대비 22.2%의 감소세 보임, 이는 전년도 수입에 무상 쌀지원의 수치가 산입되어 있기 때문, 해당 요인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수입 부문 5.5% 감소를 보이는 등 감소세가 역력
 - ▶ 조총련계 기업의 일당국의 자금수사등 일본내 입지축소
 - ▶ 임가공 주수출품(전기, 의류) 북한내 물류사정 및 경쟁력 약화
 - ▶ 9월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됨
- 2003년도 : 전년대비 28.2% 감소한 2억7천만불규모를 기록, 수출입이 공히 감소하였음.
 - ▶ 일본인 납치문제의 대두 및 공론화 등에 따른 일본인의 대북감정 급속 악화
 - ▶ 봉수호사건 발발⁵⁾로 인한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검사 강화
 - ▶ 대북 수출품에 대한 검사의 강화(Catch All)⁶⁾ 등을 통한 규제외 증가 등에 인한 영향이 발생

5) 2003.4월, 북한국적 봉수호가 마약밀수 혐의로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에 나포된 바 있음(연합뉴스 03.4.20자)

6) Catch All : 과거 공산권 국가에 대한 첨단 무기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및 상품을 수출규제하던 대공산권수출규제(COCOM)가 발전한 것으로, 테러지원국에 대한 포괄적 수출규제를 담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됨

2000년대 이후 북-일 교역 현황 변화7)

(단위 : 미\$천, %)



○ 2004년도 : 전년대비 4.8% 감소, 태국에 2대 교역국 지위를 내주게 됨. 동기간 대비하여 북-중 교역은 28억5천만불에 달하게 되어 공산권붕괴전 교역수준으로 회복

- ▶ 2월 외국환법의 개정(대북송금제재)
- ▶ 5월 북-일 정상회담의 재개
- ▶ 6월 특정선박 입항금지법(보험가입여부등을 통한 북한 선적 제재) 등 경제제재 강화 등이 실시됨⁸⁾

7) KOTRA 각 년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년도 WTA 통계, 2001년도 대일수입의 경우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대북지원 쌀 가격은 9억2천292불에 달하나, 이는 국제시세보다 비싼 일본 국내산 쌀 가격으로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통계금액이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교역규모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커져 통계해석상 왜곡의 소지가 있으므로, KOTRA 대외무역동향에서는 일본이 WFP(세계식량기구)와 계약한 금액은 1억6백만불(1톤당 212불)에 해당하며, 이 수치를 기준으로 잡고있음

8) 기타 북한의 주대일 수출품인 바지락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가 과거까지의 샘플검사에서 전량검사로 의무화됨에 따라 마이즈루항에 5인, 사타이미나도항에 7명 등의 세관직원이 증원되어 엄격한 검사와 시간지연등이 이루어지고, 여름철 폐독(貝毒)의 발생등으로 하여 수입수요가 감소하게 됨 (KOTRA 동경무역관)

- 2005년도 : 전년대비 23.3% 감소, 1억9천3백만불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저하되어 과거 1977년 이후로 최저무역액을 기록하게 됨. 동시에 2001년 이후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일 정부는 6자회담등 모든 대북접촉기회를 통해 일본인납치사건을 강조
 - ▶북한산 바지락조개의 원산지 위조사건 발발⁹⁾
 - ▶대북감정 악화로 인한 섬유류 수출의 급감 등이 발생

- 한 편, 북-일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 ▶90년대 말 광명성 1호, 대포동 미사일 등으로 대표되는 장거리 미사일 문제,
 - ▶2000년대 초반 부터 이어져 오는 핵보유 관련 문제
 - ▶2003년도 이후 대두되고 있는 일본인 납치문제등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최근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인 납치문제로 볼 수 있음

9) 부정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1월 JAS법 개정에 따른 바지락조개 원산지표시 강화가 이루어지게 됨. 관련 여론 악화로 일본내 수입 격감

2. 북한의 대일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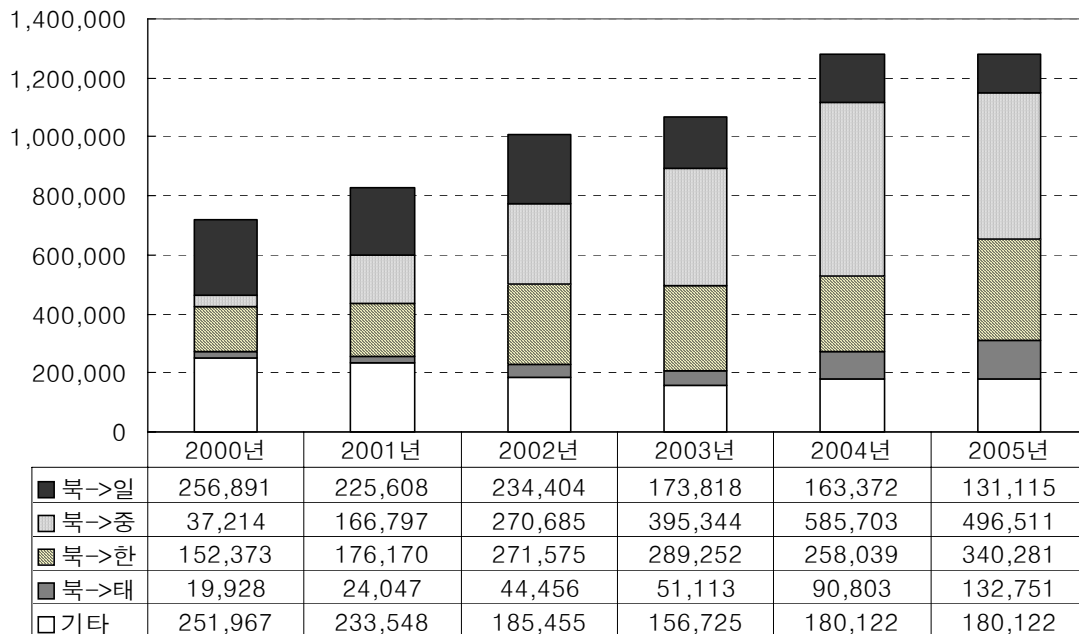
가. 북한의 대일 수출 현황

■ 일본의 수출 점유율 추이

- 일본은 70년대와 이후 1990년대 초 공산권 붕괴 이후 전통적으로 북한의 주력 수출 시장에 해당. 그러나, 2000년 이후 북한의 대외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반해, 역으로 최근 급속히 북한의 대일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음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수출 주요국 점유율 변화 추이¹⁰⁾

(단위 : 미\$천, %)



- 대일수출이 감소한 반면, 기타 대중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수출, 대태국 수출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10) KOTRA 각 년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년도 WTA 통계, 2005년도 기타국가 수출액은 2004년도 통계로 잠정 집계함

- 이렇듯, 북한의 대일 수출은 대내외 정치상황의 악화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2005년도 대일 수출액은 2000년도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1억3천만불 수준에 그침.
- 북한의 대일 수출 품목 또한, 시기별로 정치 경제적 이슈에 따라 심한 변동을 보임 특히 북한에 대한 대일 제재 등의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양상
- 90년대 이전까지는 아연과 납 등의 비철금속과 철강판등의 비금속 제품류가 최대 수출품목이었으며, 송이버섯과 벗짚 등 식물성 생산품, 어패류 등의 동물류와 생산품, 무연탄을 중심으로 한 광산물 등이 대일 수출의 주 품목을 이루고 있었음
- 90년대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는 80년대에 걸친 일본 조총련계의 ‘애국사업’ 등을 통한 합영법에 근거한 대북투자의 결과에 의해 위탁가공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양복, 코트 등의 의류, 단순제조 변압기 등의 전자부품류가 최대 수출 품목으로 대두함
 - 조총련계 귀국동포 등의 기술력과 북한의 낮은 임금이 결합한 방직용 섬유제품 등의 대일 수출은 90년대 중반 높은 성과를 거양함(95년도 섬유제품 1억2천7백만불 (남성복6천533만불) 수출) 단, 97년 이후 북한내 전력난 심화로 공장가동률이 하락하여 수출 하락세 보임
 - 식용조개류의 수출은 북-일 합작 어로사업 시행등으로 어획량이 급증하여 90년대 꾸준히 증가함
 - 다다미용 벗짚은 중국산 등으로 대체되고, 송이버섯 등은 매해의 작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출량이 변화함
- 그러나, 2000년 이후 주 수출품목들 중 식용조개류(일본명 아사리, 한국명 바지락)의 수출이 원산지 규정, 전수검사 등의 조치로 인해 저조해지고, 일본 소비자들의 대북감정 악화등으로 인한 주요 임가공제품인 남성의류(신사복)의 소비가 하락함에 따라 수출액이 급감하게 됨¹¹⁾

11) "북한 제품은 선박의 도착 지연 등이 다반사로 점차 일본시장에서 신용을 잃어가고 있음. 제품이나 가격 이외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2006.2월 일본내 북한전문가 KOTRA 인터뷰에서

■ 품목별 수출 추이

- 2000년도의 대표적인 수출상위 품목들의 5년간 수출액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00년도 북한의 대일수출 10대 품목의 2001~2005년 추이 변화¹²⁾

(단위 : 미\$천, %)

상위 품목	품목명 (HS4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위	식용조개류등 (0307)	69,825↗	80,771↗	71,059↘	55,995↘	53,052↘	24,947↘
2위	남성의류(신사복등) (6203)	47,273↗	41,302↘	41,725→	24,844↘	14,359↘	6,400↘
3위	기타채소(송이버섯) (0709)	20,378↗	9,916↘	15,664↗	8,591↘	9,272→	14,980↗
4위	변압기류 (8504)	16,857↗	11,300↘	9,540↘	12,024↗	16,810↗	14,020↘
5위	각갑류(계,새우등) (0306)	12,696↗	15,626↗	37,403↗	19,109↘	16,483↘	9,964↘
6위	석탄류 (2701)	11,750↗	13,799↗	11,721↘	10,830↘	10,609→	17,394↗
7위	선철등(합금/비합금) (7201)	11,227↗	2,804↘	4,109↗	4,260→	8,596↗	8,356→
8위	남성용코트류 (6201)	6,620→	4,266↘	1,900↘	1,207→	228↘	100→
9위	천연탄산마그네슘 (2519)	5,982↗	5,647↘	6,329↗	1,800↘	756↘	1,505↗
10위	절연전선,케이블 (8544)	4,641→	3,965↘	3,667→	3,330→	1,778↘	1,178↘

* 음영 및 화살표는 하락품목, 하락정도를 나타냄.

- 특히 납치사건 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주요 생산품의 수출이 급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전체적인 수출 및 무역 감소로 이어짐
- 한 편, 북->일 교역 수출/수입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은 아래 4가지등을 들 수 있음(제III장에 서술)
 - ▶대북감정 악화 / 북한품 불매운동 등의 장애
 - ▶선박의 대일 입항등의 장애
 - ▶경제제재, 수입검사 강화 등의 장애
 - ▶중국의 성장에 따른 대체수출 / 대체수입 효과의 발생

12) KOTRA 각 년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년도 WTA 통계, 2000년도의 1~10위 품목의 년도별 추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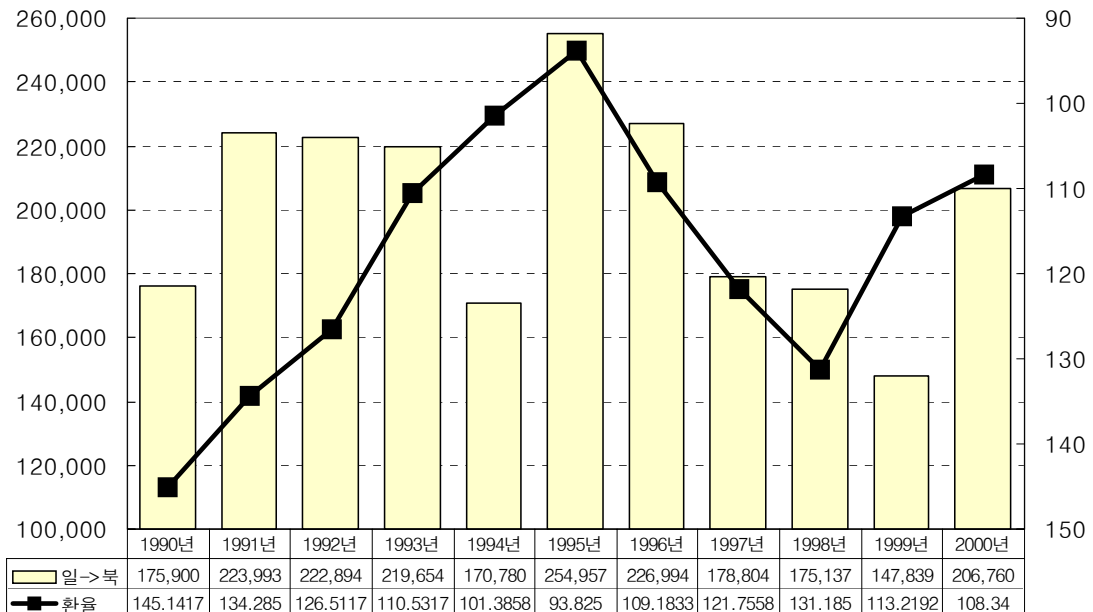
나. 북한의 대일 수입 현황

■ 북한의 대일수입 변화

- 1980년대 중반까지 기계류, 철강, 전기기기, 수송기기등 북한의 대일 수입은 수출규모를 크게 초과
- 그러나 70년대 이후 발생해 온 채무변제 미이행이 1984년 미지불채권으로 확정되는 등, 일본무역상사등의 대북수출 기피와 엔화가치 절상에 따른 북측의 수입 부담 가중으로 대일 수입은 1990년대에 이미 위축되기 시작
 -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엔화 환율의 영향 또한 크게 받음

90년대 북한의 대일 수입 현황 / 엔화 환율 변화¹³⁾

(단위 : 미\$천, 円/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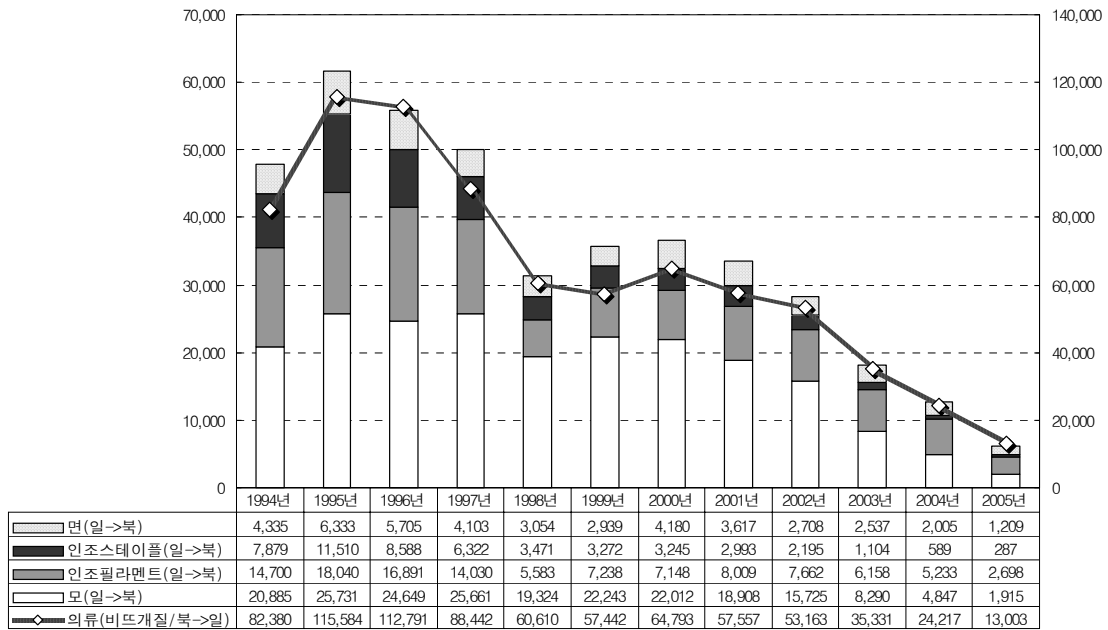
- 환율은 전체적인 수출입 뿐 아니라, 일본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13) KOTRA 1990-2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특히 위탁가공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교역양식을 비추어 볼 때, 북한제 의류(HS 62군) 등에 대한 일본 국내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관련한 원부자재의 수입 역시 급격히 줄어들음을 알 수 있음

북한의 대일 의류수출량 / 원료부자재수입량변화 추이¹⁴⁾

(단위 : 미\$천, %)



- 이와 같은 의류와 해당하는 원자재가 밀접한 정의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 기 대북투자된 일본 의류업체의 생산과 밀접한 위탁가공 방식을 맺고 있어서로 보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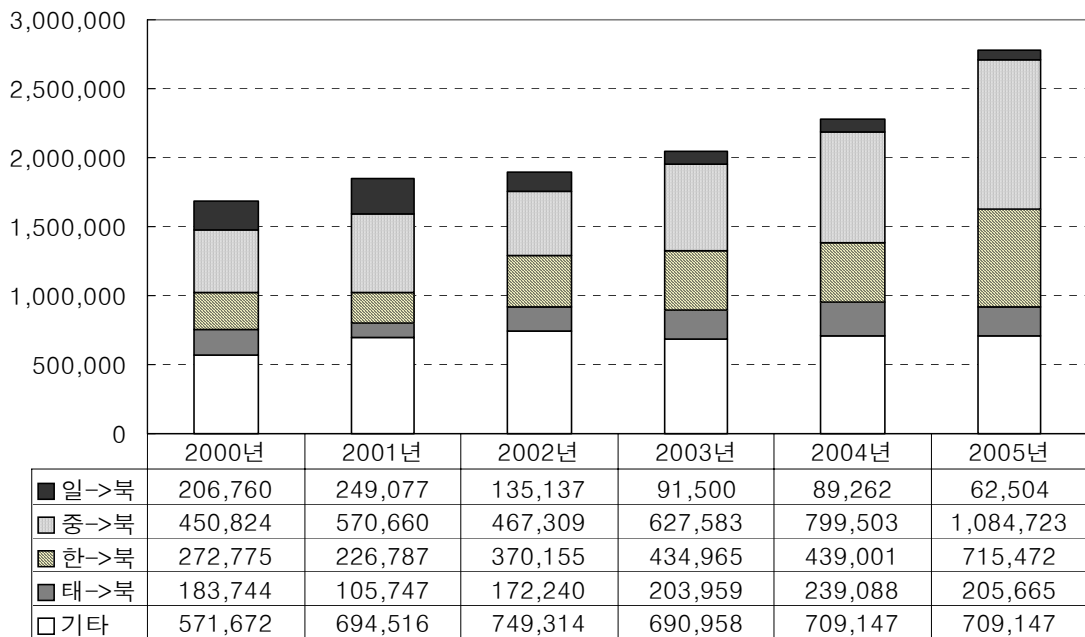
14) KOTRA 각 년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년도 WTA 통계, 각 <의류 : HS 62번>, <면 : HS 52번>, <인조스테이플 : HS 55번>, <인조필라멘트 : HS 54번>, <모 : HS 51번> 등임.

■ 일본의 수입 점유율 추이

- 2000년도 이후에는 북한의 수입액 또한 대부분 중국에의 의존도가 매우 커지게 됨, 기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수입 주요국 점유율 변화 추이¹⁵⁾

(단위 : 미\$천, %)



- 가장 많은 증가치를 보이는 것은 역시 중국으로 최근 5년간 평균 21.2%의 큰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비산유국인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유 및 에너지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임
 - 북핵문제로 KEDO의 중유 지원 등 국제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에너지 조달을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

15) KOTRA 각 년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년도 WTA 통계, 2005년도 기타국가 수출액은 2004년도 통계로 잠정 집계함

- 원유 조달에 있어 중국산은 절대적으로 2004년 북한은 해외 원유 도입량 중 86.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중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금액기준 전년동기대비 2004년 15.1%, 2005(1월~9월) 105.6% 증가)

- 한국 역시 평균 2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대북반출(한->북) 물자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비상업거래(30~40%내외)로서, 순수한 상업거래의 증가비중을 따지면 이보다 낮은 비율이 될 것으로 보여짐

2000년대 이후 남북한 상업적/비상업적 거래 비교표¹⁶⁾

(단위 : 미\$백만,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상업거래(비중)	256 (60)	244 (61)	355 (55)	425 (59)	437 (63)	690 (65)
비상업거래(비중)	169 (40)	159 (39)	287 (45)	299 (41)	260 (37)	366 (35)
합계	425 (100)	403 (100)	642 (100)	724 (100)	697 (100)	1,056 (100)

주: ()은 남북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이상과 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북한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차량, 기계 등에서 고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술한 위탁가공용 수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급감하는 것과는 차치하여, 북한내 자체 소비를 위한 수요는 앞으로도 일정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
- 결국 일본도 북한시장을 끝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향후 관계가 개선되고, 무역여건이 향상되는 경우 일본 기업과 상품의 진출 또한 기대됨¹⁷⁾

16) 무역협회, 2005 남북교역동향

17) “일본도 평양에 일본 브랜드를 투입하는 등 북한 시장을 개척해 갈 필요가 있음. 북한은 시장으로서 일본의 5개 현 규모에 상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는 시장으로 분석” 2006.2월 일본내 북한전문가 KOTRA 인터뷰

■ 품목별 수출 추이

2000년도 북한의 대일수입 10대 품목의 2001~2005년 추이 변화¹⁸⁾

(단위 : 미\$천, %)

상위 품목	품목명 (HS4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위	자동차(승용차) (8703)	19,913↗	11,036↘	14,731↗	5,433↘	9,673↗	6,157↘
2위	모직물 (5112)	18,544→	16,284↘	14,336↘	7,310↘	4,511↘	1,643↘
3위	자동차(트럭류) (8704)	13,570→	13,064→	17,186↗	17,542→	20,317↗	16,198↘
4위	석유 (2710)	9,577↗	490↘	525→	287↘	364↗	240↘
5위	전자석등부품 (8505)	8,376↗	4,422↘	3,718↘	2,366↘	1,715↘	873↘
6위	합성필라멘트 (5407)	6,230→	7,063↗	6,696↘	5,568↘	4,557↘	2,345↘
7위	발전기류 (8502)	5,077↗	2,194↘	2,374→	1,333↘	691↘	552→
8위	전선케이블 (8544)	4,273↗	3,302↘	3,319→	1,838↘	1,981→	1,332↘
9위	대중교통버스 (8702)	3,782↗	2,929↘	2,796→	2,831→	2,426↘	3,848↗
10위	혼방모직물 (5111)	3,403↘	2,612↘	1,389↘	980↘	336↘	272↘

* 음영 및 화살표는 하락품목, 하락정도를 나타냄.

- 상기 품목중, 자동차 트럭류(8704)의 수입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대중교통버스(8702) 등의 품목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위탁가공/임가공의 재료가 되는 모직물(5112)이나 합성필라멘트(5407), 혼방모직물(5111) 등의 경우 수요가 거의 없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일 수출과 마찬가지로 특히 납치사건 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주요 생산품의 수입이 급감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또한 기계부품류의 감소는 Catch All 규제강화가 큰 영향으로 보임¹⁹⁾

18) KOTRA 각 년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년도 WTA 통계, 2000년도의 1~10위 품목의 년도별 추이임

19) “과거에 병기 관련 부품을 수출한 기업의 경우, 문구류를 수출하는데도 수출허가가 어려운 상황”-KOTRA 북한정보 2004년도 보고중에서

3. 일본의 대북 투자 및 원조 경향

가. 북한의 대일 투자 유치²⁰⁾

■ 일본의 대북투자

- 1984년에 북한은 투자유치를 위한 ‘합영법’을 제정하게 됨.
- 이후 80년대에는 조총련계를 주축으로 한 대북투자가 ‘애국사업’의 명목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짐, 이중에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실시된 ‘재일동포귀국사업’ 등에 따라 이루어진 북송인원 90,442명 등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영세한 투자도 많이 포함됨²¹⁾

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일 투자유치액 통계²²⁾

(단위 : 백만\$)

년도 (4.1~익년 3.30)	투자금액
~ 1990	30
1991	2
1992	4
1993	0
1994	0
1995	0
1996	1
1997	0
1998	0
1999	0
2000	0
2001	0
2002	0
2003	0
2004	0
누계	37

출처 : 재무성 ‘금융제정통계월보 대내외 직접투자상황’

- 20) KOTRA 무역관 북한경제보고 일본의 대북투자현황 내용 발췌, 상세 대북투자내역은 개별기업 정보 노출등의 우려가 있어 생략함
- 21) 연합뉴스 2006.2.5 / 한 편, 총련계 대북투자 중에서는 북한의 노동력과 귀환재일교포 등의 기술이 결합된 신사복 등의 제조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 대일수출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함 - KOTRA
- 22) 재무성의 ‘대내외 직접투자상황’ 통계는 1억엔 이하의 대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음(재일북한 상공인 투자는 1억엔 미만이 비교적 많음). 달러표기는 재무성 통계를 기준으로 JETRO에서 작성한 ‘일본의 지역별 대외직접투자’를 참조한 것임

- 그러나 순수 일본기업은 1991년 북한의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설립 이후에도 대북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일본기업들은 납치 및 핵과 같은 정치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 북한 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일본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 이윤으로 채무를 회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채무 변제(북한의 채무 불이행 문제, 이자를 포함해 약 1,000억엔 상당)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입장
- 모란봉 주식회사의 모란봉 합작회사 설립이 대표적인 대북 투자로 총연합 합작사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상공인에 의한 투자는 약 120건으로 투자규모는 소규모이며 현재 가동중인 기업은 수십개사 정도에 불과함
 - 투자분야는 섬유, 식료품, 피아노, 합성수지, 회토류,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하지만 섬유 등 경공업 분야와 식당과 같은 서비스 분야가 중심을 이룸. 일부 설비·원료·연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대북 투자의 전형적인 형태²³⁾
- 1990년 이후 합작투자기업의 가동률은 저하되고 신규투자는 격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전력사정 악화 및 일-북간 갈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특히 계약불이행, 임의적 위탁가공비 인상, 사정발급문제 등 상이한 경제관리시스템 및 세계시장무역시스템과의 부조화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01년 8월 조선총연합 합작추진위원회(일본 소재)는 명칭을 ‘재일조선합작경제 교류협회’로 바꾸고 일본기업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었지만 채무 불이행 문제 및 상관습의 차이에 기인한 신용문제 등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현재에 이룸
- 2002년 현재의 구체적인 사업부문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 중국의 투자내용 이외에 일본으로부터의 신규투자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

23) 특히 1986년 2월, 김일성이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돈이 있는 자는 돈을,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조국인민을 위해 합작을 전개해 줄 것”이라는 요구하면서 이후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함

북한의 합병, 합작, 가공무역의 상황²⁴⁾

사업부문	내 용	비율
화학공업	레이어, 재생수지, 도료, 재생타이어 등	7%
기계공업	방전가공기, 엔진, 건설기계수리 등	8%
전기/전자	음향기기, 코일가공, 주물가공, PC소프트	10%
광물/금속/전자재	흑연, 아연, 고순도 크링커, 대리석 등	8%
경공업	어패럴, 피아노, 포장재, 섬유, 자석, 생수, 장식품	37%
농업	다다미 벗짚 등	5.5%
수산업	수산물가공, 진주핵	5.5%
서비스	합병은행, 골프연습장, 일, 수송, 택시, 식당	19%

○ 과거 재일교포 1세의 경우 비즈니스 관점에서보다는 자기만족(국가에 대한 애국심, 산업 부흥에 대한 신념, 민족의식의 고양)을 위한 ‘조국부흥사업에 참가’ 취지에서 북한에 투자해 왔음

- 하지만 재일교포 2세, 3세로 가면서 명예보다는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대북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현재 이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판단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대북투자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중국의 대북투자

○ 한 편,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는 비약적인 성장중이며, 그 투자대상은 지하자원등이 주 분야가 되고 있음, 이는 향후 중국과 전방위적인 자원확보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관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10월 길림성의 통화철강그룹, 연벤텐츠철강그룹, 중강그룹 3개 기업이 향후 50년간의 무산광산²⁵⁾ 개발권을 따내는 계약을 북측과 체결. 총 투자 금액 70억 위안(약 9억 US\$) 가운데 50억 위안은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20억 위안은 수송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며, 매년 1000만 톤의 철광석을 채굴계획임.²⁶⁾

24) 출처 :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동아시아경제정보 2002년3월호

25) 무산광산은 아시아에서도 큰 철광생산기지로서 12억 톤 이상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북한에서 가장 큰 철광산임.

26) 동아경무신문(東亞經貿新聞) (2005. 11. 1), 홍콩 대공보(2005. 11. 2), KOTRA 2005 기획조사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중에서 재인용

남북한의 광물매장량 비교표²⁷⁾

광종	품위(%)	단위	매장량		대비(B/A)
			남한(A)	북한(B)	
금	금속기준(Au 100)	톤	30	1000~2000	33.3~66.7
은	금속기준(Ag 100)	톤	1175	3000~5000	2.6~4.3
동	금속기준(Cu 100)	천톤	41	2155	52.6
아연	금속기준(Zn 100)	만톤	44	1000~2000	22.7~45.5
철	Fe 20~50	백만톤	20.2	2000~4000	99.0~198.0
중석	WO ₃ 65	천톤	99	200~300	2.0~3.0
몰리브덴	MoS ₂ 90	천톤	10	1~3	0.1~0.3
망간	Mn 40	천톤	123	100~300	0.8~2.4
니켈	Ni 3	천톤	-	10~20	-
흑연	각급	천톤	1837	6000	3.3
석회석	각급	백만톤	4465	100000	22.4
마그네사이트	MgO45	백만톤	-	3000~4000	-
석탄	각급	억톤	3.5	147	42.0

- 북한은 남한에 비해 적게는 2~3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중국 비철금속 관련 대기업인 오광집단(五礦集團)은 평안북도에 위치한 용등탄광²⁸⁾과 석탄시굴 관련 합자회사를 설립기로 합의, 이는 북한이 처음으로 자국 탄광을 외국자본에 개방한 것임, 기타 량강도 혜산동광 개발, 북한 산농산 금광 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
- 이상과 같이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각종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리적 이점이 있고, 품질이 좋은 북한 지하자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일본 역시 향후 북한내 자원에 큰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다대함
- 또한, 중국측이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방식 중에서 보상무역이라는 투자방식은 향후 일본의 대북투자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기업의 대부분의 대북 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기보다는 주로 보상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음

27) 출처 : 2005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28) 용등탄광은 한때 연간 생산량이 300만톤에 달한 북한 최대규모의 무연탄 탄광으로, 현재는 연간 1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음.

- 앞서 설명한 무산광산 철광석 채굴권 취득도 광산개발, 도로건설 등의 보상 무역형태를 취함
 - 보상무역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기에 투자 리스크가 낮고 산출 주기가 짧으며 상호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에 서로 신용만 잘 지킨다면 현재 중국의 대북투자에서 알맞은 형태로 보임.²⁹⁾
- 일본의 경우 과거 대북채무로 혼이난 경험이 있어, 이러한 방식은 현재 위축되어 있는 일본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단기적, 실험적 투자에 있어서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짐
-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일관계가 국교수교와 같은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쉽게 투자등에 있어서 증가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³⁰⁾
- 기타 작년 중국에서 열린 투자박람회에 참가하여 북한으로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북한 내부적으로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일경신문 2005. 9. 19)
 - 2005년 9월 중국 장춘시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에 북한기업, 정부가 참가함
 - 이 박람회에서 북한은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함(참가기업20개사), 본 투자설명회에서 중국투자가는 더 우대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 자료준비등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접근상을 말해주는 부분

29)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금숙,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30) “특히 상사를 비롯한 일본 회사는 해외진출에 신중을 기하여 해당국가와 국교 수립후 15년-20년에 걸쳐 투자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일본이 북한과 지금 당장 국교를 수립한다고 하여도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2006.2월 KOTRA 대북거래관계 기업 인터뷰 중

나. 일본의 대북 원조 실적

- 현재 북한은 90년대 말 국가붕괴 우려까지 직면했던 심각한 기아/흉작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으로부터의 원조는 최근 2001년도에 쌀 50만톤의 무상지원이 있는 등, 꾸준히 존재하여 왔으나, 2003년도 이후의 일본내의 대북감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인도적 지원³¹⁾ 이외에는 위축되고 있음

연도별 일본의 대북 무상원조 실적³²⁾

지원시기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관	비고
1995년 6월	쌀(정부미)	30만톤		
1995년 9월	인도지원	26만 달러	UNICEF	
	쌀(정부미)	12만 달러	UNDP	
	의약품	12만 달러	WHO	
1995년 10월	쌀(정부미)	20만톤		
1996년 6월	쌀(정부미)	525만 달러	WFP, UNICEF	
	의약품	75만 달러		
1997년 10월	쌀(정부미)	6.7만톤	WFP	
	의약품	9,400만엔	국제적십자사	
2000년 3월	쌀(정부미)	10만톤	WFP	
2000년 10월	쌀(정부미)	50만톤	WFP	2001년 계상
2004년 4월	긴급의료물자	10만 달러	WHO	의약품 원조
2004년 8월	쌀(정부미)	12.5만톤	WFP	4,000만 달러
	의약품	500만 달러	UNICEF	기초의약품
	의료기기	200만 달러	WHO	살균기, 주사기, 봉합실, 수술대 등

31) 2004년 4월 북 용천역 폭발 사고에 이어서 이루어진 의료 및 식량, 의료기기 지원으로서, 인도적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2) 2006 KOTRA 일본 무역관 자체 조사 보고내용임

- 참고로, 중국의 대북무상원조 실적은 1994년, 1996년, 2001년, 2005년에 대폭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불규칙적으로 증감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추세치를 보이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무상원조가 대부분 양국 고위급이 참석하는 외교행사 때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임³³⁾

연도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실적

(단위: 천불, %)

연도	금액	증감율
1993	664	-
1994	6,175	829.9
1995	6,093	-1.3
1996	40,135	558.7
1997	34,414	-14.3
1998	32,047	-6.8
1999	48,364	50.9
2000	27,564	-43.0
2001	69,129	150.8
2002	15,968	-76.9
2003	10,888	-31.8
2004	14,556	33.7
2005(1-9)	33,759	197.7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이러한 양국의 대북지원은 한국의 무상원조액에 비교하였을때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³⁴⁾

33)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이 북한을 방문, 식량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을 북한에 지원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 2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등 - KOTRA
2005 기획조사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발췌

34) 2004년 한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2억 5,520만 달러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한국의 5.7%에 불과한 수준.

Ⅲ. 북일 교역의 장애요소

1. KOTRA 실시 대북거래 일본기업 인터뷰

■ 인터뷰 개요

- 목적 : 최근 북-일관계, 교역에서의 장애등을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함
- 개요 : 2006.1.20~2.3에 걸쳐 일본 현지 무역관을 통한 거래 기업 3개사 및 전문 기관 3개사와 인터뷰를 실시함
- 수단 : FAX, 전화, 방문 조사등

KOTRA 실시 대북거래 일본기업 인터뷰 내용

(2006.1.20~2.3 FAX 및 전화, 방문설문)

* 본 내용은 KOTRA에서 실제 대북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내용이며, 기업의 신상은 비기명, 비실명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의 활용에서 당사기업이 판명되는 경우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 활용 등에 있어서도 절대로 전체 내용을 그대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A (중견 의류 생산업체)

개요:

1990년대 북한에 의류생산공장을 설립, 원부자재를 가져다 현지에서 생산, 일본으로 수입하여 대형 의류전문점 등을 통해 판매해 왔음, 연 생산량 XXX벌 이상으로 일본제 설비등을 갖추고 생산하여 기술력, 품질, 디자인 등에서 일본내의 제품이나 중국등지의 제품들과 뒤지지 않는 수준을 갖추고 있었음

Q. 현재의 북일관계 / 사업환경에 대하여 평가, 전망은?

A.

납치문제, 핵, 미사일문제 등으로 사상최악의 상황임. 동사는 이전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Made in DPRK)을 일본내의 대형 남성복전문체인점으로 납품해왔으나 이들 납품처가 북한산 거래중단을 선언하여 판매가 불가해짐. 작년 이래로 수출입이 전혀 없음

일본거래처가 북한산 취급을 중단한 이유는 ㄱ) 일본인납치사건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북한산 제품은 취급하고 싶지않기때문. ㄴ) 일본인납치피해자가족의 북한산 제품 불매 운동의 압력. ㄷ) 일반소비자가 DPRK가 북한이라는 국가인식률은 떨어지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Made in China가 아닌 경우 소비자가 점원에게 어느 국가제품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점원이 북한이라고 대답할 경우 소비자가 구입거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 등 세가지 이유임

Q. 최근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A.

한국 기업이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임

북한이 대외개방, 개혁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현체제를 유지하는 토대 위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또한 북한은 봉건사회에서 바로 사회주의체제로 넘어가게 되어 자본주의 등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회이기에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와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대등한 입장이 아님. 인프라 면에서도 마찬가지임

Q. 북한과 무역, 투자시의 문제점은?

A. 북한과 무역, 투자시는 방침이 확정되어도, 그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되어있지않아 중도에 바뀌는 경우가 많음. 소위 국가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봄

Q. 대북 투자가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투자심리는?

A.

조총련계가 북한투자에서 실패를 많이 하여 대북투자가 줄어들고 있음. 그 이유는 과거 조총련 사람들은 북한을 동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및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북한은 조총련계 사람을 외국인으로 인식(겉으로는 동지로

부르고 있지만)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이에서 조총련계가 많은 실패를 겪게 되었고, 여기에 배신감을 느낀 조총련계에서는 북한을 100% 신용하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었음. (과거 한국계 재일교포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상황과 비슷)

향후 북한경제가 대폭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대북투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

기업 B (농산물 무역)

개요:

80년대 부터 북한과의 무역을 개척함. 현재는 거래가 위축되어 연간 XXXX불 수준의 교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거래 상품은 농수산물임

Q. 현재의 북일관계에 대하여 평가, 전망은?

A.

현재상황은 매우 어려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송금도 안되고 국제전화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북사업을 전개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될 시에는 러시아, 중국등을 통한 삼국무역을 활용하는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단, 일본의 대북상황이 호전/타개될 시에는 대기업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임. 한국은 일본의 자본력, 한국의 물자로 북한을 개발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나 개방 등이 이루어지면 일본의 대기업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느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임.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는 알 수 없음

Q. 현재의 북중 경제적 밀월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

A.

두만강 지역을 50년간 중국에 대여하여 개발하는 등, 북한은 국가를 중국에 팔아 넘기고 있는 것 같음. 앞으로도 점점 중국에 넘기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북한 전체가 중국에 팔려나갈 것 같아 걱정스러움.

김정일이 경제개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하는 건,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보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경제개혁 의지 및 중국과의 협력을 과대포장해서 보여줌으로써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인상을 남기려는 행동인 것 같음

Q. 최근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A.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잘 될지 여부는 모르겠음. 11월에 경제개발대회를 열기도 하였지만 그다지 신용이 가지 않음. 북한의 대외개방, 개혁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음

Q. 북한산 제품의 일본 진출(북->일수출)의 강약점과 애로사항은?

A.

강점으로는 인건비가 싸며, 근면성이 있고 머리가 좋으며 손기술이 좋은 민족이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음. 그리고 자연이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약점으로 일본사람이 북한을 싫어하고 있으며, 북한 시스템 자체가 국민을 일하지 않게 만들고 있음.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체제에서는 일부러 노력하려 하지 않게 되어 제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음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경제제재로 인해 교역이 어려움. 그리고 일본국민이 북한을 싫어하는 점도 애로점임. 일본정부는 북한을 가상의 적국으로 삼게끔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자위대법 개정 등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음. 이럴 때일수록 북한과 한국이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역으로 남북교역은 한가지 루트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에 따른 높은 수수료가 장애가 되고 있음

Q. 일본산 제품의 대북 진출(일->북수출)의 강약점과 애로사항은?

A.

강점은 일본제품은 무조건 좋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임. 그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기타 경제제재로 인해 통산성 등에서의 사전검사와 같은 엄격한 세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문제가 교역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

이상의 기업은 북한과 관련되지 않으려 하고 있음. 이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지령인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것이 교역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그리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로서 돈이 없기 때문에 교역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별로 없음. 거래를 하더라도 대금 회수가 불안하여 교역을 꺼리게 됨

Q. 대북 투자가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투자심리는?

A.

재일 조선족은 약 11만 명 가량이 북한에 귀국한 상태로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북투자는 이들 귀국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귀국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 예를 들면 동생이 북한에 귀국한 경우 형이 동생을 원조하는 차원에서 공장을 설립해주거나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경우 등임. 그러나 순수한 비즈니스차원이 아니라 원조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인 탓에 잘 운영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로 끝났음. 그나마 현재 일본이 장기 불황이고 불경기라서 일본내 친지 들도 더 이상 대북 투자, 귀국자에 대한 원조는 어려운 실정

또한 싸게만 만들어서는 더 이상 사업 수지를 맞추기 힘들뿐만 아니라 북한내 사업소에 대한 방문이 어려워 공장 등 사업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실정임. 그리고 북한은 노동력과 토지 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 제품 원료 등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투자 진출이 향후로도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특히 상사를 비롯한 일본 회사는 해외진출에 신중을 기하여 해당국가와 국교 수립후 15년-20년에 걸쳐 투자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일본이 북한과 지금 당장 국교를 수립한다고 하여도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기업 C (무역업체)

개요:

과거 북-일 수출입 무역사업을 계속 진행해 온 전형적인 무역업체임. 2005년도 수출입 실적이 XXXX엔 정도이며, 바지락 등의 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입하고, 역으로 중고가전제품, 상용차 등을 북한으로 수출해옴

Q. 현재의 북일관계에 대하여 평가, 전망은?

A.

북일관계가 호전될 가망성은 거의 없음. 그 이유는 일본이 미국과 대북관계에 있어 동조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내 군수업계를 위해 끊임없이 적대국가로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포스트 이라크에는 북한을 악의 축 화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을 가속화할 것임. 일본은 이에 발 맞추어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할 것이므로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음

Q. 최근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A. 개혁, 개방이 있었는지를 전혀 실감하고 있지 못함

Q. 현재 북-중 경제적 밀월 상황에 대한 인식은?

A.

북한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과 가까워지면 일본내 기업으로서는 이로울 것이 없음. 일본 국적의 배는 마음대로 북한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을 틈타 중국인이 중국국적의 배를 활용하여 북-중-일 삼국간 교역을 추진하는 등 중국인만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함

중전에 북한과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일본의 상사들도 중국이 개방정책을 내놓고 북한과 교류하기 시작한 이래, 북-중 관계가 심화되어 가고 북한이 일본이 아닌 중국을 우대하자 북한으로부터 대부분 철수하였음. 그 전에는 많은 순수 일본 상사가 철강석, 수산물, 석탄, 아연 등 다수 품목을 취급하였으나 북한이 중국을 우대하여 동일제품의 FOB 기준으로 대일수출 가격을 대중수출가격 보다 15-20% 비싸게 받게 되면서 중국의 상사가 북한에서 물품을 싸게 수입 후 일본에 우회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일본 상사로서는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렵게 되어 대부분 철수하게 된 것임. 그 결과 현재 순수 일본 상사에 의한 대북 무역 거래는 거의 없고 조총련계 영세 재일교포무역인에 의한 무역 거래만 존재

Q. 북한산 제품의 일본 진출(북->일수출)의 강약점과 애로사항은?

A.

강점보다는 약점이 많음. 일단 일본인은 Brand에 약한 데 북한은 국가 브랜드가 최하위인 데다가 납치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 까지 있어

일본내 북한산 제품 판매가 쉽지 않음. 두 번째로 일본은 제품의 규격이나 기준에 대해 아주 철두철미하게 따지나 북한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제품의 품질, 납기 등을 맞추기 힘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수년 전부터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기 시작한 이래 조개류를 비롯, 북한산 수산물 판매가 더욱 어려워졌음

단 한가지 강점으로는 아무나 북한과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기에 경쟁자가 수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임. 현재 일본내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북한국적을 소유한 재일 조총련계임

Q. 일본산 제품의 대북 진출(일->북수출)의 강약점과 애로사항은?

A.

강점은 일단 일본 국가 브랜드가 갖고 있는 확고한 이미지, 일본산 제품의 품질, 성능 등에 대한 신뢰 등임

일본 제품의 약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점임. 특히 북한 제품의 소득 수준에 비하면 일본 제품은 매우 비싼 것이 현실이나 필수품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음

그 전까지는 대북수출이 되던 제품이 북한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대북 수입이 금지되는 등 제도적 장벽이 존재함. 많은 교포들이 일본의 중고차를 북한에 수출해왔으나 북한내에서 한국과의 합작으로 승용차가 생산되기 시작하자 북한이 상용차 외에 일반 승용차의 수입량을 줄여 현재는 트럭 등의 상용차만 수출되는 실정. 이와 마찬가지로 종래에는 자전거도 북한에 수출해왔으나 북한내 자전거 생산 공장이 설립되자 작년 부터는 자전거의 수입이 금지된 상태임

○ 이상 등의 조사에서 북일교역의 장애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됨

- ▶ 납치사건 관련 대북감정악화
- ▶ 경제제재, 수입검사 강화 등의 장애로 기업활동 위축
- ▶ 중국의 성장에 따른 대체수출/대체수입 효과의 발생

2. 납치문제 관련 일본의 입장 및 대처사항

가. 납치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

- 가장 먼저 들수 있는 북-일교역의 장애로는 납치자 문제로 대변되는 일본 대중의 대북감정 악화에 있음

■ 납치 문제 관련 일본의 인식

- 북-일 관계에 있어 최대 현안은 납치문제의 해결로 일본 외무성은 관련하여 일본의 입장이 국제사회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중

북한은 2005년 9월 개최된 제 4차 6자회담에서 북-일 정부간 대화 재개에 합의, 2005년 11월 약 1년만에 북-일 정부간 회담이 개최되었고 2006년 2월에도 북-일 정부간 협의가 개최됨

납치문제는 일본내에서 일본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

북-일 정부간 교섭을 비롯해 다양한 기회를 통해 북한측에 납치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생존자의 즉시 귀국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납치문제 해결을 모색해 가는 것이 중대 현안임. 이에 대해 북한측은 과거 청산문제가 선결과제임을 주장중임

- 일본 정부 대응의 배경 및 취지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자유의 침해라고 보는 것이 일본측 입장임.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2005년 4월 제 61회 UN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결의’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 표명

2005년 9월 UN이 발표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일본 정부는 G7 정상회담 등 각종 외교 행사를 통해 납치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각국으로부터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해왔음.

미국의 경우 2003년에 이어 2004년도 연차 테러보고서에서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이 국제테러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않다고 지적

■ 납치사건 / 국교정상화 관련 주요 경과

2000. 10월 북일회담	11차 국교정상화 교섭, 성과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회담 중단
2002. 4. 29 적십자회담	북한 거주 일본인 처의 고향 방문이 추진됨
2002. 8. 18 적십자회담	일본인 실종자 6명의 안부가 최초 확인됨
2002. 9. 17 북일정상회담	북한은 오랜 기간 부정해왔던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일본측에 사죄, 재발방지를 약속 고이즈미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납치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태의 계속 조사, 생존자 귀국, 재발방지 요구 (9.28~10.1 실사조사팀 파견)
2002. 10. 24	정상회담후 일시고국방문 형식을 취하던 일본인납치생존자 5명의 영주귀국 조치
2002. 10. 29 북일수교회담 (쿠알라룸푸르)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와 관련해 150개 항목에 이르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정보제공을 북한측에 요구했으나 북한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 받지 못함
2004. 5. 22 북일정상회담	양국간 북-일 평양선언을 이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일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고이즈미 총리가 재차 방북, 납치문제를 비롯한 핵, 미사일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안전보장상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 납치 문제와 관련해 납치피해자의 귀국 문제, 백지상태에서의 납치 진상 규명 재개와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음
2004. 8. 11~12 북일실무자회담	북-일 실무자 협의가 베이징에서 개최.
2004. 9. 24~26 북일실무자회담	북한측으로부터 일본측이 제시한 150개 항목 대해 정보제공을 해왔지만 정보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단편적 경과 설명에 그침
2004. 11.9~14 북일실무자회담	11월 회담은 5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위원회'와의 질의응답 이외에 총 16명의 증인들로부터 직접 사건의 청취, 나아가 납치와 관계된 시설 등에 대한 현지 시찰이 이루어 짐 동 회담에서는 납치 실종자와 관련 북한측에 5명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을 요구함과 동시에 추가 정보 존재시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거듭 요구, 실종자 중 메구미씨의 유골을 전달함
2004. 12.9~16	일본 니가타 경찰, 메구미씨의 유골의 DNA는 본인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 북한측은 허위 주장이라며 유골의 반환을 요구함
2004. 12. 24~	대표단 귀국후, 북한측 언급이 있었던 정보와 물적증거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동 결과를 동년 12월 24일 일 정부가 납치피해자 가족들에게 설명 제 3차 북-일 실무자 협의를 통해 확보한 정보, 물증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왔지만 8명이 사망하고, 2명의 북한 입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북한측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 일본 정부는 북한측 비망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거듭 생존해있는 납치 피해자 즉시 귀국과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
2005. 4. 27~	일본 정부는 납치피해자의 인정에 관한 정부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개최하고 다나카 미노루 씨를 납치 피해자로 인정. 현재 일본정부가 인정한 북한의 납치사건은 총 11건 6명에 이름.
2005. 12.24~25 북일회담(베이징)	1년만의 협상 재개, 정부간 협의에서 납치문제, 핵문제, 국교정상화 문제등의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논의하기로 합의함
2006. 2. 2 후쿠오카고법	조총련 시설인 '구마모토(熊本) 조선회관'에 대해 구마모토시가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판결 선고함. 일본 법원이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면세 조치를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은 처음이어서 조총련 시설에 감·면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 1972년 이후 사실상의 외교기관에 준하는 시설로 혜택을 받아왔으나, 2003년 도쿄도의 우익성향의 이시하라 지사가 동혜택을 취소한 이후, 지자체들 판단기준이 변화하고 있음
2006. 2. 4 북일회담(베이징)	납치문제를 시작으로 각 분과 회의 진행

나. 일본대중의 대북감정 악화

■ 스쿠우카이회의 활동

- 한 편, 북한과 거래중인 일본 현지 기업인(대부분 재일교포 또는 조총련계들은 북한 상품에 대한 일본 일반 대중 및 기업의 인식이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음, 또한 향후 전망 또한 그리 밝게 보고 있지 않음
- 또한, 비즈니스 진행에 있어서 일본 소비자 및 유통망 등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이며(A사 인터뷰 애로사항 참조), 일본 정부 등의 자세에서도 대북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보임(B사 인터뷰 애로사항 참조)
- 한 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스쿠우카이’(도쿄 소재, <http://www.sukuukai.jp>) 등 납치피해자 가족의 활동 및 우익보수 단체, 언론의 압력으로 인해 일본정부의 간접적인 대북경제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2005년초 북한산 조개의 원산지 표기문제가 불거진데다, 보험미가입 선박의 일본입항 불허조치, 재일총련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중단은, 일본당국이 준법강화책이라고 하지만, 대북제재를 희망하는 여론 무마책으로 의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 정부 등은 이들 단체의 요구에 대해 공식 / 비공식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³⁵⁾

35) 2005년 11. 28일 스쿠우카이측이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발동을 요구하기 위한 아소 외상과의 면담에서의 대화내용 :

아소외상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조기발동 요청에 대해서) 법에 근거한 제재이외에도 압력은 얼마든지 있다. 고이즈미정권이 들어서서 처음으로 고정자산세 미납으로 조선총련에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보험 외국선박의 일본입항금지조치도 북한에 압력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RCC(정리회수기구)가 총련에 대해 600억엔의 반환을 요구한것등도 북한에 큰압력이 되었을 것”

“납치문제가 해결되지않고서는 전후처리를 위한돈(북일국교수립시 북한측에 지급할 전후배상금의 의미)을 쓰지 않을것이라고 (일정부가) 언급하고 있는것도 북한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더 나아가 수쿠우카이 측은 대북제재촉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며, 북한산물 건 불매운동, 총련건물에 대한 면세중단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치권, 법계에서도 큰 압력으로 작용중³⁶⁾
 - 최근 구마모토현을 상대로 수쿠우카이 측이 총련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면세중단소송에 대해, 구마모토지법에서는 합법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인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 위법 판결(2006년 2월 3일 아사히신문참조)이 나온 바 있음

*** 참조 (2005년 12월1일 KOTRA 북한경제정보보고) :**

동 앙케이트 결과는 지난 9월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당선된 당선자 전원에 대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수쿠우카이’가 ‘대북경제제재 조기발동’에 대한 찬성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정당별 결과>

정당명	찬성	%	반대	%	기타	%	회답자	미회답	회답율
自民	159	72.3%	1	0.5%	60	27.3%	220	76	74.3%
民主	63	67.7%	1	1.1%	29	31.2%	93	20	82.3%
公明	7	36.8%	0	0.0%	12	63.2%	19	12	61.3%
共産	0	0.0%	1	16.7%	5	83.3%	6	3	66.7%
社民	0	0.0%	2	50.0%	2	50.0%	4	3	57.1%
日本	0	0.0%	0	0.0%	1	100.0%	1	0	100.0%
國民	1	50.0%	0	0.0%	1	50.0%	2	2	50.0%
大地	0	0.0%	0	0.0%	1	100.0%	1	0	100.0%
무소속	12	75.0%	0	0.0%	4	25.0%	16	2	88.9%
합계	242	66.9%	5	1.4%	115	31.8%	362	118	75.4%

480명 중 362명이 회답한 이번 조사에서 회답자의 66.9%가 ‘납치피해자 구출을 위해 조기 (북한에 대한)제재를 발동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기타 의견이 31.8%, 반대한다는 의견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72.3% 찬성을 보였고, 제1야당인 민주당도 67.7%의 찬성율로 비교적 높은 찬성을 보였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찬성의견이 36.8%, 기타의견이 63.2%였다.

이 조사를 근거로 수쿠우카이는 일본정부의 대북경제제재의 즉각 발동을 요청하고 있다.

36) 2005년 2월 15일 자민당은 납치문제대책본부를 개최하여, 일본 단독으로 대북한 무역규제를 실시해도 북한 GDP의 1.3-7%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음 여기에는 올해 초 제정된 ‘개정 외환 관리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등이 포함

3. 전통적인 북일교역 장애요소

가. 일본의 북한에 대한 관세정책

- 과거에도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압박은 관세정책 등을 통해 시행되어 옴
- 북한산 제품은 일본에서 통관시 국정(Statutory)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음³⁷⁾. 즉, 북한산 제품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후발개도국이 적용받는 특혜(Preferential)세율이나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받는 협정(WTO)세율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요소로 작용
- 전기전자제품(HS Code 85류) 등 기술집약적 품목의 경우 생산국가에 상관없이 관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제품류는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탁가공 등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류, 신발 등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쟁국보다 가격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
- 일본정부는 현재 북한을 ‘미수교국’ 이라는 이유로 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국과는 1968년 미수교상황 하에서도 관세격차를 해소해주는 조치를 취한 바가 이미 있음³⁸⁾

일본시장에서의 관세율 비교표³⁹⁾

HS Code	품목	기본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0306	각갑류	4-15%	1-10%	무세-4%
0307	식용조개류등	5-15%	3.5-10.5%	무세-9%
0709	기타채소(송이버섯)	5-10%	3-6%	무세-1.5%
190230	인스턴트라면	25-28%	21.3-23.8%	-
2007	잼(유자 등), 젤리	20-40%	12-34%	무세
200830	차(유자차 등)	20-35%	17-29.8%	-
210390	마요네즈등 소스	9.6-14%	7.2-10.5%	무세-6%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	무세	무세	무세
2701	석탄류	0-4.6%	0-3.9%	무세
3922	플라스틱육실용품	5.8%	4.8%	무세
3923	플라스틱운반용구, 포장용구	3.9-5.8%	3.9%	무세

37) 북한외에 국정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는 동티모르, 안도라 2개국 밖에 없음

38) ERINA REPORT Vol 47.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經濟關係の歴史と現狀' 중에서.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3924	플라스틱식기 등	5.8%	3.9%	무세
3926	기타플라스틱제품	무세-5.8%	(무세)-3.9%	무세
4014, 15	콘돔, 의료용장갑등	무세	(무세)	-
4016	기타고무제품	무세-4.6%	무세	-
420211	가죽제 각종가방	12.5-20%	10-16%	무세, 8-12.8%
420212	플라스틱또는 섬유제 각종가방	5.8-20%	4.6-16%	무세, 3.68-12.8%
420221	가죽, 인조가죽제 핸드백	10-20%	8-16%	무세, 6.4-12.8%
420222	플라스틱, 섬유제 핸드백	10-20%	8-16%	무세, 6.4-12.8%
610620	인조섬유제 여성용블라우스,셔츠	16.8%	10.9%	무세
610910	면티셔츠 등	11.2-16.8%	7.4-10.9%	무세
610990	방직용섬유티셔츠 등	11.2-16.8%	7.4-10.9%	무세
611030	인조섬유제 트레이닝복, 가디건 등	16.8%	10.9%	무세
611592	면제 스타킹, 양말	9%	7.4%	무세
6201	남성용코트류	11.2-16%	9.1-12.8%	무세
620193	인조섬유제 아노락 등	11.2-16%	9.1-12.8%	무세
621510	면넥타이	13.4%	(13.4%)	무세
6203	남성의류(신사복등)	11.2-16%	9.1-12.8%	무세
640299	기타신발	20%	8-10%	-
640399	기타신발	27%-60% 또는 컬레당 4800엔중 높은 것	21.6%-30% 또 는 2400엔중 높 은 것	무세
640411	스포츠화	10%	8%	무세
7117	모조장신구	3.2-12.5%	2.7-10%	무세
7201	선철등(합금/비합금)	무세	무세	무세
7323	철제 식기	무세	무세	-
8215	비금속제 식기	4.6%	3.9%	무세
8504	변압기류	무세	무세	무세
8544	절연전선,케이블	0-5.8%	0-4.8%	무세
9501	유모차, 유아용 자전거 등	3.8%	무세	무세
9502	인형	4.6%	무세-3.9%	무세
9503	완구용악기,퍼즐, 기타완구	3.4-4.6%	무세-3.9%	무세
9504	비디오게임, 유희용카드, 체스 등	무세-4.6%	무세-3.2%	무세
9505	크리스마스용품, 카니발용품	3.8%	3.2%	무세
9506	볼류	3.8%	3.2%	무세
9608	볼펜, 만년필 등	무세-6.6%	무세-5.4%	무세
9609	연필, 크레용 등	무세	무세	-
9613	담배용라이터	2.6-5.1%	(2.6%)-3.4%	무세
9615	머리빗 등 헤어관련제품	3-5.1%	2.5-4.3%	무세

자료원 : 실행관세율표 2005, 일본관세협회 등

- 본 주요관세율표 중 음영부분은 2000년도 북한의 대일수출 상위 10개 품목으로서, 변압기, 선철 등의 품목에 있어서는 무세관정을 받을 수 있지만, 남성용 의복류, 조개등 식품류 등에 있어서는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까지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세율관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북경협이 큰 장점으로 1국간 교역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관세가 없다는 점이 꼽힘을 고려한다면,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북일교역중 위탁가공교역 부문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됨

나. 기타 장애요소

- 북한의 대일 수출에 있어서 고질적 장애요소가 관세이라면, 대일수입에 있어서 고질적 장애요소는 Catch All과 수출입용자비혜택 등을 들 수 있음
 - Catch All은 과거 COCOM(대공산권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에서 비롯하였으며, 9.11 사태를 맞아 테러국 및 테러지원국에 대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 및 첨단기기를 통제하는 규약으로 일본의 경우 2002년 완전적용하였음⁴⁰⁾
 - 또한, 1984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일본의 기업이 북한과 상거래를 할 시, 일본수출보험 및 일본수출입은행의 용자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관련한 무역행위에 큰 손해가 되는 것으로 봄
- 이외에도 일본의 대북경제압박조치는 계속적으로 강화중임. 2005. 3월 '선박유탁 손해배상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법은 좌초한 배가 방치돼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북한을 겨냥한 법으로, 100톤 이상 선박의 선주책임보험가입을 입항의 조건으로 규정⁴¹⁾
 - 이에 따른 북한 연간 총보험가입비용은 최소 6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

40) 2004년 5월 일본 기업은 미사일 발사 및 우라늄 농축을 위해 전용될 수 있는 직류안정화 전원장치 3대를 태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은 관련 물자의 대북 수출규제를 위한 국제연대를 추진하고 있음 -KOTRA 대북정보 2004년도 내용

41) 100톤 이상의 대일운영 북한 선박중 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단지 16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 (KOTRA 무역관 보고)

- 이와 함께 농림수산성은 북한산 모시조개(바지락)의 원산지 표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민당은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대응에 따라 단계별로 발동할 제재조치를 마련중임⁴²⁾
 - 자민당내에는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이 존재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동으로 경제제재를 발동하는 환경을 법으로 정하는 안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 본 안에 따른 요건에 발동되는 대북송금금지/ 북한 선박 입항금지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일수출 / 북한 및 일본 물품의 통관을 가로막게 될 것으로 보임
- 2004년 5월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합의를 일본 자체판단으로 대북 송금 정지 및 무역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혀 대북경제제재 문제와 관련하여 미·일 동맹 중시함을 나타냄. 이는 일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북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셈임
 - 일본에서 이뤄지는 대북 송금 및 현금반출액 규모는 지난해 까지 최근 3년간 127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요미우리 04.6.28)
- KOTRA 조사결과, 조심스럽게 일본의 경제제재는 의미가 없다는 일본내 북한전문가의 견해도 있음⁴³⁾

북일무역은 2002년이후 대폭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오히려 상당부분 활발해지고 있음. 이로인해 북한의 무역규모는 2002년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약 35.5억달러(남북교역포함)였고, 2005년은 4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공산권 붕괴직전인 1990년의 수준(42억달러)에 거의 접근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북한의 일반경제분야에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전망됨

- 일본내 전문 연구기관 북한담당 -

42) 이러한 한계를 약화된 북미관계가 현재 공고한 공조를 보이는 미일의 입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미·일 관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북·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이 북한의 화물여객선 출입요건을 강화한 사실이나, 조총련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돈을 줄을 조이려는 시도 역시 긴밀한 미·일 공조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 통일연구원 입장택 위원 북한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세미나(2005.4.7) 발표자료중

43) KOTRA 2006.2월 조사한 내용임. 익명으로 3개 기관을 인터뷰함

IV. 북일 교역 이슈

1. 일본내 대북거래 기업(조총련등)의 위기

■ 북일 경색의 직접적 피해자는 재일한국인사회(조총련등)

- 한 편, 이러한 악화된 북일관계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총련계 기업들은 중국등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를 찾아 나서고 있음
- 북일관계의 악영향, 일정부의 경제압박등의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재일한국인사회, 특히 조총련계의 상공인, 무역인임
- 금번 KOTRA가 일본에서 실시한 대북거래 기업 인터뷰를 통해서, 또한 최근 무역통계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북일관계의 악화와 양측의 참여한 대립은 북한으로의 부정유출자금을 막는등의 일본측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을지는 모르나, 대부분이 재일교포에 해당하는 북일교역을 통한 생활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 실제로 금번 북한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일본으로 납품중이던 인터뷰 기업 A의 경우, 작년 이후 북한상품의 일본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려, 심각한 경영란에 봉착하여 있음
-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이후, 경제난과 정치적 고립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총련계 기업들도 1990년대 들어 일본의 거품붕괴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되어온데다, 일본당국의 세무제재 등으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 타개책을 모색하는 조총련

-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조총련산하기관인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상공연)는 2005년 6월 중국경제시찰단을 파견함하는 한 편, 2005년 10월에 도쿄에서 신규사업 투자설명회를 가짐

- 중국경제시찰단은 5박6일간 베이징, 상하이들을 방문, 투자유치당국, 중국기업, 조선족기업 등을 방문
 - 신규사업투자설명회는 행사 부제 “벤처파트너 2005~비즈니스와 머니(Money)의 만남”이 뜻하듯, 기술력있는 동포와 자본투자자를 만나게 해주는 장을 구성하는 것임
- 한국, 북한, 일본 어느쪽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일마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조총련계 및 재일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임

2. 북일→북중교역으로의 무게중심의 이동

■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됨

- 한 편, 중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는 현상 또한 한 층 심화되고 있음

북한의 교역 비중 변화 추이⁴⁴⁾

(단위 : 미\$천,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국	737.5	27.6	738.2	25.4	1,022.9	32.8	1,385.2	39.0	1,581.2	39.0
한국	403	15.1	641	22.1	724	23.2	697	19.6	1,055.8	26.0
일본	474.7	17.8	369.5	12.7	265.3	8.5	252.6	7.1	193.6	4.77
태국	130.1	4.9	216.6	7.5	254.3	8.2	329.9	9.3	338.4	8.34
총계	2,673.5	100.0	2,901.4	100.0	3,115.3	100.0	3,554.1	100.0	미집계	100.0

자료원 : KOTRA, 2004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 WTA 각국통계, 남북교역동향 발표에서

44) 남북교역을 포함한 통계,

*2005년 점유율, 총계는 중,한,일,태국 등 4국 제외 기타 국가는 2004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때의 수치

- 2005년 총계가 집산된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북한교역에서의 중국점유율은 무려 39%에 달함
- 과거 90년대 경화결체체제로 변화하였을 때의 경제거래가 축소상황 이후 되어 1999년에는 3억7천만불 수준으로 근년 최저치를 기록함, 그러나 이후 꾸준한 회복을 보여온 북-중 교역은 일본과의 거래가 축소됨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음⁴⁵⁾

■ 북중일 보세수출입에 의한 치환가능성

- 또 다른 몇가지 북중경제교역의 특징을 중국측 통계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수출입 교역의 유형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음

유형별 북한의 대중 수출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미\$천, %)

	구 분	일반무역	변경무역	가공무역	보세수출입	무상원조	기 타	총 계
2000	금 액	912	29,521	5,032	1,354	-	395	37,214
	비 중	2.5%	79.3%	13.5%	3.6%	-	1.1%	100%
2001	금 액	9,717	40,025	21,175	94,861	-	949	166,727
	비 중	5.8%	24%	12.7%	56.9%	-	0.6%	100%
2002	금 액	8,842	54,960	10,990	191,903	-	4,168	270,863
	비 중	3.3%	20.3%	4.1%	70.8%	-	1.5%	100%
2003	금 액	20,880	81,319	10,333	278,268	-	4,544	395,344
	비 중	5.3%	20.6%	2.6%	70.4%	-	1.1%	100%
2004	금 액	75,000	156,384	21,684	321,119	26	11,446	585,703
	비 중	12.8%	26.7%	3.7%	54.8%	0.004%	2%	100%
2005	금 액	147,941	181,920	23,679	145,445	-	237	499,222
	비 중	29.6%	36.4%	4.74%	29.1%	-	0.05%	100%

* 중국해관총서

- 특히 일본과의 위탁가공무역이 현저한 하락세를 띄고 있는 것과는 대비하여, 무역방식별 대중수출입 통계에서 가공무역(50.7%↑)방식이 크게 증가

45) 1999년에는 북중교역액이 3억7천만불 수준으로 근년 최저치를 기록함, 그러나 2001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강택민 주석의 북한방문이 이어지고, 200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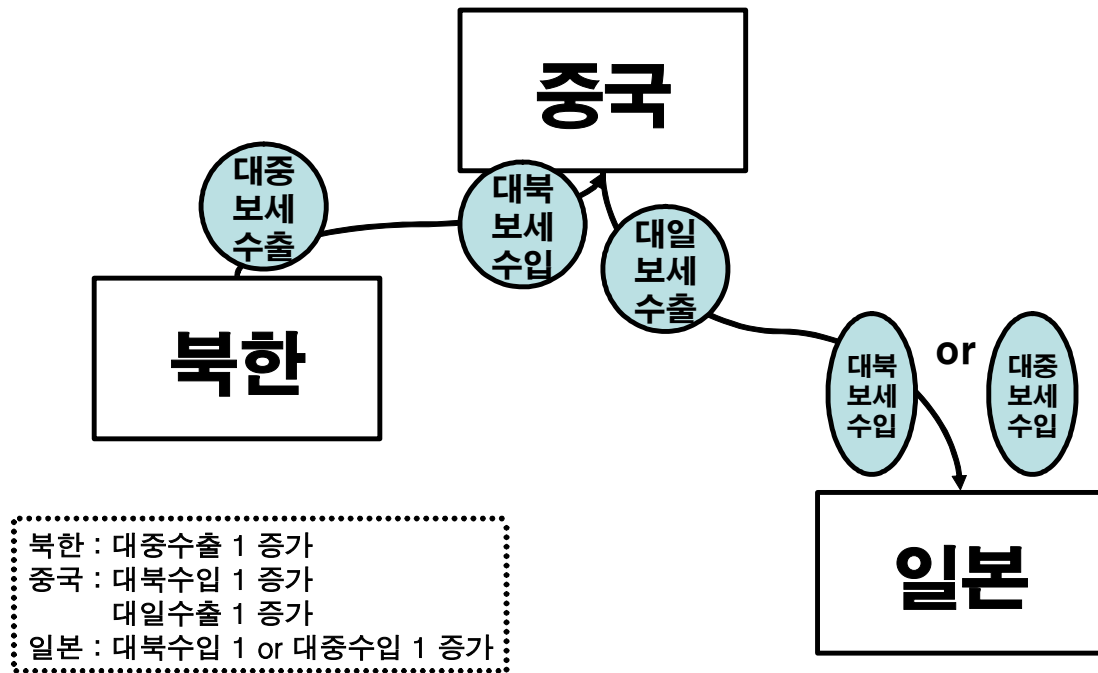
- 중국의 대북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북 투자의 주요 패턴 중 하나인 가공무역이 활성화됐으며, 향후 대북 투자가 심화됨에 따라 가공무역 방식의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⁴⁶⁾
- 2002년 이후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상대적으로 보세무역이 감소하고, 일반무역 및 변경무역이 증가함은 북중간 직접 교역액이 증가했음을 나타냄
- 보세무역은 중국을 경유한 제3국 수출을 계상한 것이므로 일반(변경)무역의 점유율 증가는 북중간 직교역 비중이 높아진 것을 나타냄
- 특히 변경무역의 경우 중국이 변경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임시 정책으로서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주는 혜택이 보장되어 있어, 북한산 물품이 변경무역을 통해 중국에 수출될 경우 일반 무역보다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변경무역수출로 전환되고 있음⁴⁷⁾
- 한 편, 북중 수출에서 가장 유의하여 보아야 할 부분은 보세수출입
 - 보세수출입은 중국세관을 단순통과하여 제3국 최종수출되는 제도⁴⁸⁾
- 북한의 중국에 대한 보세수출의 주 품목은 어패류 및 섬유 제품이 주요 품목에 해당하며, 이는 북한의 대일주력수출품목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보세수출의 비율 또한 급격히 하락(70%→55%→29%)하고 있어 대일 수출 등의 근본적 수요가 없어짐을 의미함

46) ‘이러한 배경에는 북일관계의 경색과 국제사회의 원조 감소라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 먼저, 일본인 납치 문제가 비화되면서 북일관계는 악화되었고, 양국간 긴장 관계의 고착화는 교역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중략)... 주요 전략 수출품인 어패류의 수출은 중국, 남한 등으로 전환되었고, 위탁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의 수입 및 완제품의 대일 수출도 줄어들었다. 반면, 북중교역 환경은 지리적 인접성, 중국의 저가 공산품 공급능력 확대, 정치적 유대 강화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하여 북중 교역 증대를 가져왔다.’ -KOTRA 2004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47) 현재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12%, 평균 증치세율은 1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변경무역을 통할 경우, 일반 무역을 통한 것보다 대략 14% 가량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편집자 주) 그러나 2004년 하반기 들어 북중간 변경무역에 주어지던 세제 감면 혜택이 축소·폐지되고 있다. 중국의 랴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 정부는 지난해 변경무역 관련 감면세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했다. KOTRA 북한 경제 속보 2004.10.29

48) 보세수출입은 보세창고진출경화물(保稅倉庫進出境貨物)과 보세구창저전구화물(保稅區倉儲轉口貨物)의 두 가지를 일컫는다. 전자와 후자는 모두 최종목적지로 가기 위해 보세구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제3국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자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세수출입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대중 수출로 보기는 어렵다. “2003년 상반기 북중교역 동향”, KOTRA 심층기획조사, 2003. 10.

<북→일 대중 보세 수출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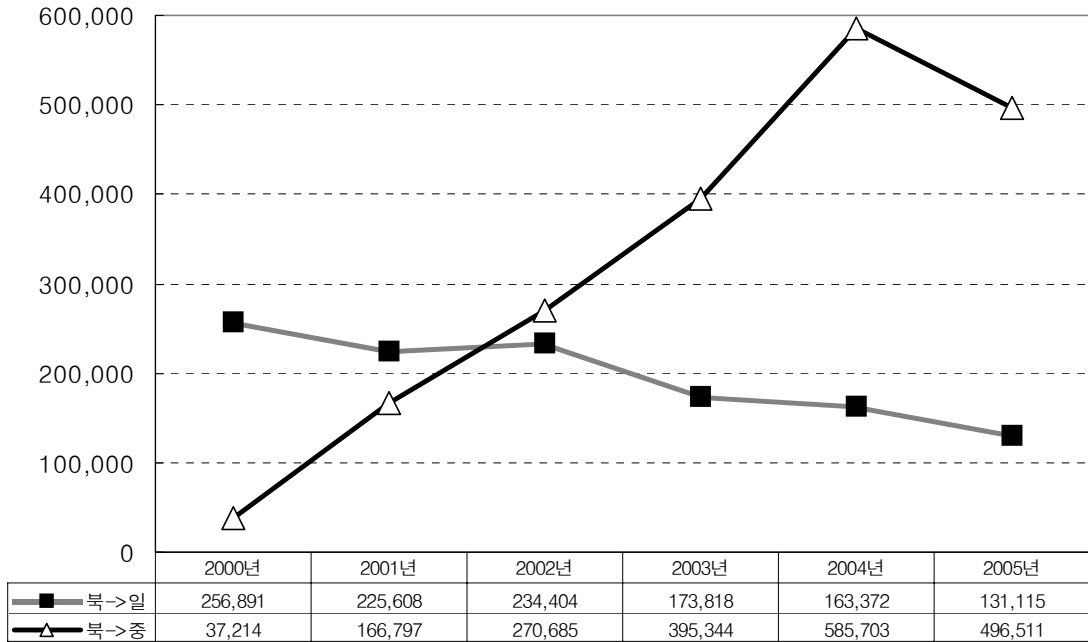
○ 2002년도의 보세수출 부문의 대폭적인 상승에는 중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중계지 역할의 강화⁴⁹⁾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2003년 이후의 지속적인 보세수출 강세는 북한 상품이 중국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으로 재수출되는 치환효과 또한 분명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매년 1억불 이상의 대폭 증가를 보이다 2005년에는 다소감소한 5억불 규모에 달하고 있음

49) 최근 남북간의 교역이 무관세인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제품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제품을 북한으로 반입시켜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후, 다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반입되는 경우에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실적으로도 잡힐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수출이 급증한 요인으로는 이러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KOTRA 200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일/대중 수출 추이⁵⁰⁾

(단위 : 미\$천, %)



- 특히 금번 일본내 북한거래기업인터뷰를 통해 북한국적의 선박이 일본 영해를 이용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중국의 선박등이 어부리지(漁父之利)를 보고 있다는 현업 종사자의 견해⁵¹⁾와도 부합하는 내용임

■ 북중 밀월관계에 대한 일본의 평가

- 현재의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인 밀월관계에 대하여 일본 언론에서는 북한의 내재적인 경제학습에 더 의의를 두고 있음
 - 일본 언론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訪中이 중국식 개혁을 학습, 북한 경제를 재 정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안팎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50) KOTRA 각 년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년도 WTA 통계,

51) 본고 기업 C사 인터뷰

“일본 국적의 배는 마음대로 북한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을 틈타 중국인이 중국국적의 배를 활용 하여 북-중-일 삼국간 교역을 추진하는 등 중국인만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함”
 “북한이 중국을 우대하여 동일제품의 FOB 기준으로 대일수출가격을 대중수출가격 보다 15-20% 비싸게 받게 되면서 중국의 상사가 북한에서 물품을 싸게 수입 후 일본에 우회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일본 상사로서는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렵게 되어 대부분 철수하게 된 것”

김정일 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베이징발, 서울발 기사를 인용해 상세히 보도

-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해 중국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미국의 금융제재 및 6자회담에 대한 대응, 불법경제 행위 처리 문제, 합법적인 외화획득을 위한 개혁·개방정책 전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재확인(니혼게이자이신문)
 -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002년 경제 개혁 조치를 도입한 뒤 국민생활이 오히려 악화되자 이번 중국 시찰에 나섰다며 귀국후 새로운 경제계획을 밝힐 것(요미우리 신문)
 - 북한은 (북미, 북일관계의 경색국면에서) 경제제건을 위한 해결방안을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끌어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됨. 금번 김정일총서기의 중국비공식방문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룩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북한이 학습하려는 모습을 중국에 보여줌으로써, 제11차5개년계획기간중에 지속적인 중국의 경제원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됨((KOTRA 인터뷰 일본 북한 연구기관 A)
- 한 편, 이러한 북중경제관계는 일본 입장에서 일본이 경제제재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임⁵²⁾
- 북일무역은 2002년이후 대폭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오히려 상당부분 활발해지고 있음. 이로인해 북한의 무역규모는 2002년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약 35.5억달러(남북교역포함)였고, 2005년은 4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공산권 붕괴직전인 1990년의 수준(42억달러)에 거의 접근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북한의 일반경제분야에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전망됨(KOTRA 인터뷰 일본내 북한 연구기관 B)
 - 일본 정부로서는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이상, 북-중 경제관계 강화 움직임을 현재로서는 방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KOTRA 인터뷰 일본내 북한 연구기관 B)

52) 각주 23등 참조

- 또한,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납치피해자 관련 국민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 금 손 쓸 방안이 없다고 보임 또한, 일본 입장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북한의 자원 개발 문제와 관련 일방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분석(KOTRA 인터뷰 일본내 북한 연구기관 B)
 - 일본도 평양에 일본 브랜드를 투입하는 등 북한 시장을 개척해 갈 필요가 있음. 북한은 시장으로서 일본의 5개 현 규모에 상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는 시장으로 분석(KOTRA 인터뷰 일본내 북한 연구기관 A)

- 이와는 달리, 현재의 북중밀월관계는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도 존재
 - 북한과 중국이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금융제재로 인해 북-중간 대금결제 등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기술협력이나 바터 무역, 3국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일시적인 처방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음(KOTRA 인터뷰 일본내 북한 연구기관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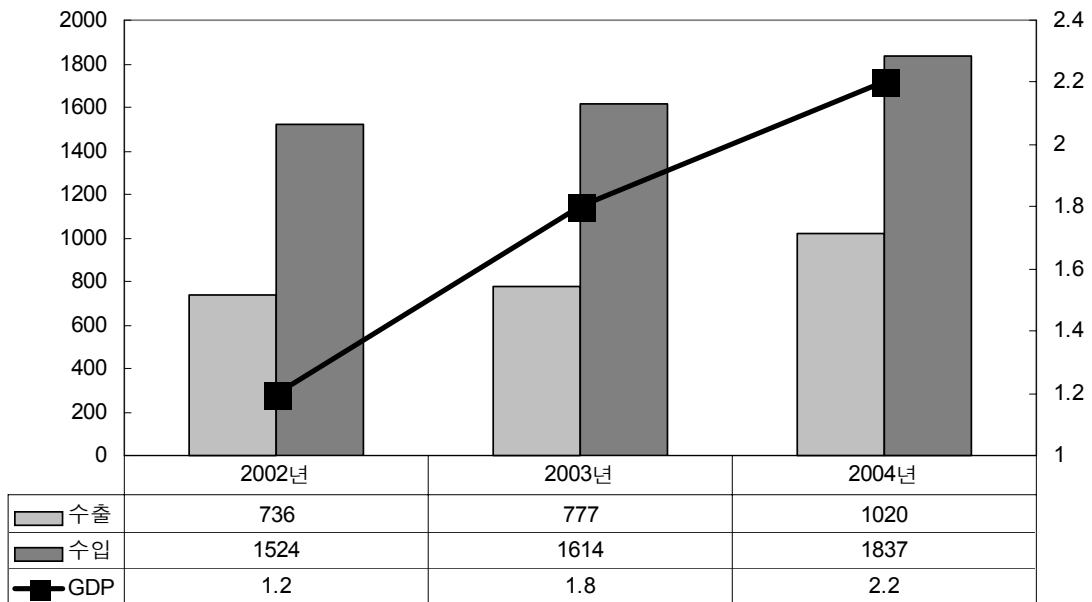
3. 북한 경제의 회복세 및 향후전망

■ 북한의 경제상황

- 현재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상황은 90년대 말에 비하여 점차적으로 향상 /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북한의 2002~2004 경제성장률 및 수출입⁵³⁾

(단위 : 미\$백만, %)



- 2002년 7월 1일, 소위 7.1 조치가 북한에서 행해진 이후, 북한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및 노동의욕이 제고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의식개혁이 진행, ▶시장메카니즘의 도입 및 확산, ▶농업·경공업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업이 활성화, ▶소수이지만 개인의 소득 증대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짐⁵⁴⁾

53) 남북교역을 제외한 통계,

54) 2005.4월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최수영

■ 북한 경제학자의 진단

- 북한측 경제학자의 자평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가 2005년부터 경제활성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음

북한 경제학자의 북한 경제상태 파악⁵⁵⁾

기간	상태
1990년대 ~ 1998년	‘고난의 행군’의 시기
1999년 ~ 2004년	‘생산정상화의 시기’
2005년 ~	‘경제활성화의 시기’

- 경제활성화의 목표는 과거의 수준(1980년대 중반)을 돌파하는 것으로 자체 설정하고 있음

- 세부적 목표로 북측은 ▶경제관리의 개선, ▶에너지, ▶생산설비의 정비, ▶유통, 농업, ▶인민생활 분야 등 제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함

- ▶경제관리개선 : 경영자율화, 권한의 지방 및 현장 이양, 보상체제등
- ▶에너지문제 : 석유 생산 증대로 07년까지 전력란 해소 목표
- ▶생산설비정비 : 기계공업현대화로 80년대 생산력 초과가 목표
- ▶유통 : 지역시장, 기업 상호간 물자유통하는 시장체제 운용
- ▶인민생활 : 식량과 주요소비품을 국산화하는데에 중점화

- 또한, 북한은 대외적으로도 무역및 투자를 통한 시장경제를 익히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05년 9월 중국 장춘시에서 중국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개최
- 2006년 5월 평양국제전람회에는 일본기업도 초청 예정⁵⁶⁾

55) ERINA REPORT 2006.1월호 중, 2005년 9월 1일에서 8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한 일본 ERINA 연구소의 일본인 연구원이 북한 경제학자와 북한경제현황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임

56) 2006년 9회제를 맞는 평양국제전람회는 2006년 5월 평양 삼대혁명전시관신기술혁신관 등에서 개최되며, 일본측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음

- 하지만 북한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무역 및 투자유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보다 한층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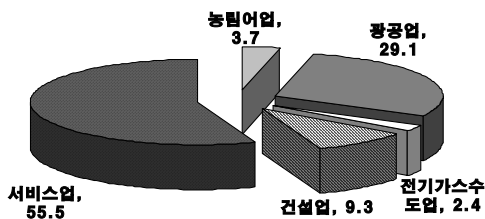
한 / 북 / 중 / 일의 2004년 경제지표비교 57)

(단위 : 미\$백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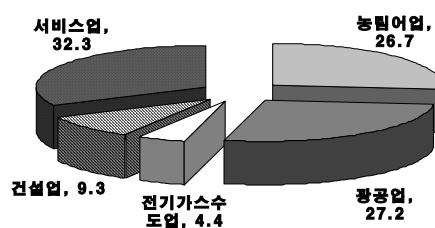
국가	GDP 성장률	무역의존도	투자의존도(2003)
한국	4.6%	78.8%	8%
중국	9.5%	68.52%	36%
일본	1.7%	20.3%	2%
북한	2.2%	13.8%	-

-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태의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78.8%로 높은 것을 차치하더라도,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의 경우 GDP의 무역의존도가 68.52%에 달하고 있으며, 투자의존도 또한 36%에 달하고 있음
 - 현재 북한의 무역의존도 13.8% 등은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
- 현재의 북한 산업구조는 아직 농어업 위주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북-일 교역은 오히려 1차산품위주의 수출, 기계 및 공산품의 수입이라는 퇴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임

<한국의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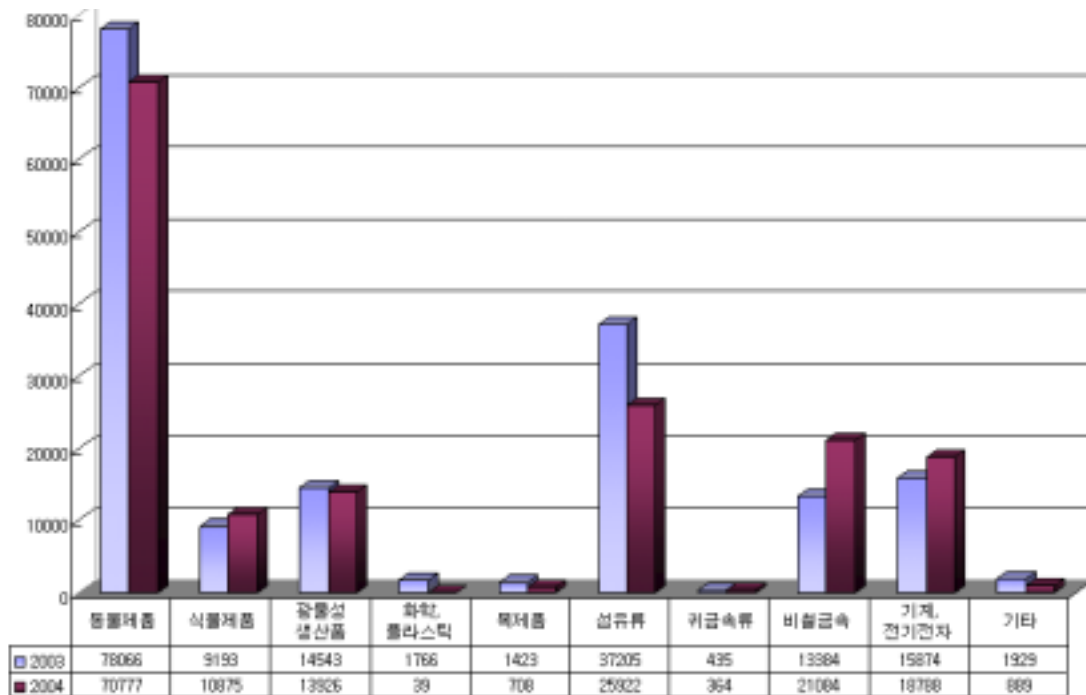
<북한의 산업구조>58)



57) 한중일 : 2005 KOTRA 기획조사, 2004 한중일 삼국의 직접투자현황, 중국경제 2005년 5대 사건과 2006년 5대 과제 등,
북한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통계청

58) 출처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 북한의 대일 수출 품목 구성⁵⁹⁾>



○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서서히 회생하고 있으며, 제반 사항과 컨트리 리스크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다면 북일교역구조는 다시 변화할 것으로 보임

■ 북일교역은 정치적상황 타개와 함께 해소 가능

○ 북-일 교역, 투자 및 원조등 경제관계의 핵심은 양국의 정치적 문제들이 타결될 때에는 다시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⁶⁰⁾

- 중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경화결제체제로 변경후 1999년에 양국간에 최저수준의 교역(3억7천만불)을 보였으나, 200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2001년 장쩌민 중국주석의 평양방문으로 연결되면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4차례의 교차답방등을 통해 세계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간의 유대협력을 강화해 나갔음

59) 2005 WTA 일본 통계

60) “북한의 핵문제 해결 등 대북관련 상황이 호전될 경우, 북일경제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된다면, 양국 국교정상화, 경제협력프로젝트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006.2월 일본 내 북한전문가 KOTRA 인터뷰

- 동 기간을 통해 북한은 중국을 통해 ▶에너지문제(석유등)를 조달, ▶식량의 대부분을 조달, ▶투자유치를 통한 외자도입 등의 성과를 거두며 2005년에는 총 교역액이 15억불을 돌파하였음
 - 일본 또한, 현재 진행중인 국교정상화 회담이 ▶국교정상화(과거청산 및 보상), ▶납치문제 ▶핵/미사일문제 등에 대하여 타결될 경우에는 획기적인 북일교역및 투자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음
- 북일관계가 정상화를 향해 진전될 경우, 북한의 대일수출은 현재의 동물제품(주로 조개류) 등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위탁가공이 가능한 섬유류, 잡화류, 전기전자부품류의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 실제로 일본은 북한이 위탁가공시에는 제품생산력에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능력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의류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품질도 양호. 일본산 원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가공 상태에 큰 문제가 없고 일본 기술자를 북한으로 파견해 지도함에 따라 품질상의 문제는 없음(2006.2월 일본내 북한 전문가, KOTRA 인터뷰)
 - 양복이나 코트는 양관점이나 백화점에서 일부 판매되고 있음. 품질이 비교적 양호하고 가격경쟁력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북한’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구매를 꺼려함(상동)
- 또한, 풍부한 자연부산물을 바탕으로 한, 1차산물의 수출 역시, 현재 북한의 농가인구 비중이 전체 37%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 짐⁶¹⁾
- ‘계’ 등의 수산물이 비교적 높게 인식되고 있지만 북한산 계의 경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면서 슈퍼에서 자취를 감췄음. 일반 소비자들에 게 판매되지 않고 고급 음식점에서 직접 판매되고 있음(상동)

61) 2004년 현재, 남한의 농가인구는 100명 중 7.1명, 북한의 농가인구는 100명 중 36.8명에 해당함, 통계청

V. 시사점

■ 단기적으로 북일관계의 결정적 호전은 어려울 것

- 미국과 철저한 공조체제를 이루는 한 편,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 및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납치자 문제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급속한 타결은 기대하기 힘들

■ 북일경제경색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듯

- 2003년 이후 본격화된 북한과 일본의 경제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협력, 남북교역의 증대등에 힘입어 GDP의 회복, 교역량의 증대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대북송금제한, 물자제한, 유입제한 등이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가는 핵무기, 미사일등의 제조 자본과 물자를 막는 측면이 대두될 수는 있겠으나, 측량되지는 않음,
- 이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북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던 일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중국으로 치환되는 효과만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일경제경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재일교포(조총련주축) 입

- 북일교역과 대북투자의 주축이 되고 있었던 조총련이 중심으로 한 재일교포사회는 일본사회 내에서 납치문제등으로 인한 정치적 입지 약화와 더불어 현재 북일경제경색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최근 교역량 추이를 살핀 결과 드러남

■ 장기적으로 보아 북일관계 악화는 북한을 더욱 중국으로 편중시킴

-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일본은 현재 위축되어 있으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북한의 대중경제 편향은 일본의 입장에서든 경계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며, 실제로 북일 경제교역의 수혜자가 중국으로 모두 교체되고 있어 ‘어부지리’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북중경제관계 심화가 북한경제 희생과 산업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점이 있지만, 북한 경제가 중국경제의 단순 소비지로 전락, 심지어는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에 예속해버릴 가능성까지 존재함

■ 북일관계 회복 / 경제경색국면 타개는 동북아 균형을 위해 필수

- 한국의 입장에서 북중 경제관계 심화는 ‘관찰’의 대상으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⁶²⁾
- 북한에 대하여 일본의 경제적인 입장이 바뀌어 질 때에만 북한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
- 북일관계의 회복 및 북일경제 경색국면의 타개는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자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함

62) “북중 경제 관계가 지나치게 심화되는 것을 견제하는데 있어 우리가 취할수 있는 대응 방안은 매우 제한적”
 “양국의 투자 협정 등에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를 무한대로 확대하기도 어려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북한의 대중 경제 종속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역할을 이끌어 내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필요도 있음”
 - 2005 KOTRA 기획조사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중 결론 부분

■ 단, 북일관계 급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경색도 회복가능성 상존

- 지난 보선을 통해 국내 지지율을 확인한 바 있으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등으로 대아시아 외교에서 고립국면에 빠져있는 고이즈미 내각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6년에 북일수교라는 가시적 성과 달성 위해 노력을 경주할 가능성이 존재
- 북한 또한, 6자회담, 에너지, 북일수교시의 배상금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내심 바라는 것으로 파악됨⁶³⁾
- 1999년 근년 최저를 기록했던 북중교역이 2000년 북중 정상들의 방문과 답방 등이 있는 이후, 폭발적으로 교역증가와 투자증가등 경제교류가 활발해 졌음을 고려한다면, 북일관계는 막혀있던 정치면에서의 관계개선이 있을경우, 신속히 정상화 할 것임

■ 한국은 현재의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필요

- 한국이 북중, 북일 경제관계 자체를 조절할 수는 없으나, 한국과 북한의 교역량은 현재 북한 세계 교역의 2위를 자리잡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균형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할 수는 있음
- 체제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교포 및 자본을 이용한 교류를 벌인 일본과 더불어, 한국은 시장경제 체제에 익숙치 않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 경제적인 정상화로 이끌어나가는 주도적 역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 등을 적절한 성공사례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원산지문제의 해결, 남북경협 체제의 완비 등을 통해 중국, 일본과 더불어 동북아 균형을 맞추어 나아가야 함

63) “북한은 최근 ‘가짜유골’ 문제로 상대도 해주지 않던 일본과 대화에 응하고 있는 것은 9.11 중의원 선거에 압승한 고이즈미 내각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진단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임기중 북일관계의 진전을 정치적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다.”통일한국 2006.1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북한과 일본”

작 성 자

◆ 김연건 책임연구원(동북아팀)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00~'05 북일 교역액을 중심으로 -

발행인 : 홍기화

편집인 : 한준우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화신문화 02-2277-0624

발행일 : 2006년 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